

민속무용

관 등 놀 이

제1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작품
1970. 10. 21(水) - 1970. 10. 23(金)

서 울 특 별 시

서울의 관등놀이 해설

4월 8일은 석가모니의 탄생한 날인고로 “부처님 오신날” 또는 “부처님 목욕하는날”이라 하여 부녀자들은 새옷을 갈아입고서 부근의 사찰로 가는데 각지 사찰에서는 큰 제(齋)를 올리고 명진(名展)에 등을 켜다.

이날 저녁을 “등석(燈夕)”이라고 하여 저녁이 되면 인가를 비롯하여 관청, 상점가 할것 없이 원통 등을 켜달아서 밝게 하는데 수일전부터 집집이 등대(竿)를 세우고 대끝에다 평의 꼬리를 묶고 물들인 비단(色帛)으로 기를 단다.

또 작은 집에서는 등대 머리에 소나무 가지를 매기도 하며 인가에서는 집안 자녀의 수대로 등을 켜달아서 불이 환하게 밝은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런데 집이 가난하여 등대를 세우지 못하는 집에서는 처마나 나무가지에 등을 달기도 한다.

이 등석 행사는 그 이튿날인 9일에는 끄치는데 사치하는 집에서는 큰대를 수십개씩 얹어매어 쓰기도 하고 해와 달의 형상으로 만들어 꽃아서 풍세에 따라 굴러돌게 하기도 하며 혹은 굴러 돌아다니는 등(轉燈)을 매달아서 그 등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마치 탄환이 달아나듯 하기도 한다.

그리고 종이에다 화약을 짜서 이것을 노끈, 또는 새끼에 얹어매어 불을 땡기면 터져서 꽃불같이 비오듯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종이로 등을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 띄우게 하기도 하며 괴뢰(傀儡)를 만들어 옷을 입히고 얹어떨어서 요동케 한다.

또 각점포에서는 등대를 서로 높이 하려고 다투어 승부삼아 만들기도 하였던 것이다. 옛날 서울에서는 전례에 따라 야간통행 금지가 해제되었고 서울장안의 남녀들은 초저녁에 남북의 산기슭에 올라가 등달아 놓은 광경을 구경한다. 혹 어떤이는 악기를 들고 거리를, 쏘다니며 놀기도 하는데 이때의 서울장안은 원통 사람바다를 이루어 등불의 성(城)이 되고 떠들석하면서 밤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장안 밖의 시골 사람들은 서로 불들고 다투어 와서 반드시 남산의 잠두봉(일명 용두봉(龍頭峰))에 올라가 이 장관을 구경 하였다.

이날밤 연등(燃燈)하는 등용(燈籠)의 형상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수박등, 일월등, 거북등, 오리등, 배등, 북등, 연화등, 학등, 잉어등, 향아리등, 칠성등, 마늘등, 공(毬)등, 종등, 가마등, 병등, 방울등, 용등, 봉등, 수북등, 선등, 알등, 누각등, 등 그 종류가 자못 많다.

이날 등을 켜는 풍속을 신라중엽에 팔관회(八關會)를 열므로 부터 시작케 되어 고려때에 매우 구성하였으며 이조에 이르러서는 유교가 왕성한 결과 불교를 배척함에 이르러 점차 불교의 신앙은 엷어갔었지만은 여전히 등용을 매달아 경관을 보였던 것이다.

지금은 그리 성하지 않지만 이조 말까지만 해도 관등하는 저녁에는 전례를 따라 밤새도록 남녀노소가 등불이 흰하게 매달린 거리를 길이차게 돌아 다니면서 구경을 하였다.

이번에 출연하는 이 놀이는 과거에 있었던 서울의 관등놀이를 현대인의 안목에 들도록 부활시켜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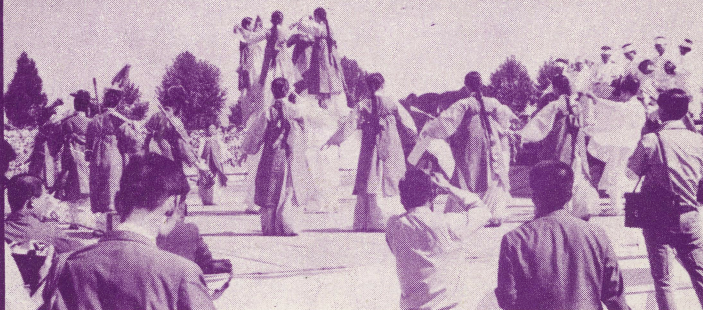
관등놀이 줄거리

석가세존의 탄생을 축하하는 4월 8일 팔각등의 다양한 조형무용과 승무, 바라무, 탑토리, 발원무로

- (1) 처음 엄숙하고도 장엄한 음악이 연주되면 어둠속에서 금빛 찬란한 부처님의 모습이 동작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여들어 그를 보고 경배한다.
- (2)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찰, 법당에서 중들이 나와 제를 올리고 각 전의 등에 불을 켜고 혹은 메달아 놓은 등에 불을 켜고는 국태민안을 빌고 득도의 어려움과 희열의 과정을 승무로서 나타내면 바라를 든 승려들이 탑을 중심으로 돌며 모든 번뇌를 뿌리치고 내세의 영생을 위하여 사는 승려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다.
- (3) 많은 선남선녀들이 손에손에 등용을 밝혀들고 불교에 귀의하여 자신의 업보를 소멸하고 국가의 융성함을 기원하며 부처님께 합장, 염불하는데 중들이 앞장서고 그뒤를 선남선녀들, 신도들이 따르면서 석탑을 들고 음악에 맞추어 춤도 추고 환호성과 꽃불을 터트리며 끝을 맺는다.



서울의 민속놀이 소개



답교놀이

이 놀이는 음력 정월 대보름 밤에 행하던 “다리밟기” 민속을 놀이화한 것으로서 이날 다리를 밟으면 일년동안 다리에 병이 없고 열두 다리를 밟아 지나가면 열두달의 액을 면할 수 있다 하여 지금으로 부터 40여년전 까지만 해도 전국 각처 큰 다리가 있는 곳에서는 성행하였다.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의하여 정월 보름날, 다리밟는 풍속이 고려때에 시작하여 남녀가 쌍쌍이 짝을 지어 밤새도록 다녔으므로 거리가 혼잡하게 되어 이날 여자 다리밟기는 금하기 까지 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다리밟기가 성하였던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이조 중엽에 와서는 성하여 다리밟기가 끝나면 민속예술 카니발이 벌어졌으며 가무별감(당시 무예청)을 시켜 권장한 때도 있었다.

답교놀이가 시작된 동기는 사람의 다리와 건너는 다리와 그 음이 같은 데서 생긴 이른바 언어질병적 속신설(俗信說)이 있다.

이 종목은 1969년 제10회 민속경영대회 서울시 출전작품으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획득하기도 했다.